

# “계좌번호 불러주는 옛말”...진화하는 모바일뱅킹업

각종 송금부터 대출·보험·카드 서비스

음식 주문·미술품 경매·스포츠 접목

“5060세대도 사로잡아라...노후 설계”

비대면 거래 크게 늘어...대응도 필요

계좌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단일 앱을 뛰어넘어 플랫폼을 꾸꾸는 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편의성, 실용성 싸움에 접어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5060 세대까지 사로잡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각각 스타뱅킹, 솔(SOL), 하나원큐, 우리원뱅킹, 올원뱅크 등 모바일뱅킹 앱을 운영 중이다.

최근 은행 영업점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비대면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돼서다. 여기에다 금융 분야에 진출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은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각종 조회, 계좌이체부터 대출 신청, 주식 거래, 보험 설계, 자산 관리까지 날이 갈수록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은행 간 문턱도 낮아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듯 조금씩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앱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송금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자금 이체와 동시에 온라인 차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했고, 송금과 함께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페이팔 제휴로 수취인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 없이도 페이팔 아이디(ID)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민간인증서 시대가 열리면서 KB모바일인증서로 보안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KB금융그룹 통합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1포인트당 1원으로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출입기자동화기기(ATM)에서 출

금해 현금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KB페이 앱에서 적립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입금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 바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온라인 경매사 서울옥션과 제휴를 맺고 은행 앱에서 미술품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오는 7월에는 쏘에서 음식 주문도 가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배달의민족처럼 음식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올원뱅크 600만 고객을 달성했다.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정부지원혜택 서비스가 특징이다. 또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NH모바일아파트대출 2.0'을 선보이기도 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간편 송금은 송금 수수료나 수취인 계좌 확인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다. 전화번호만 알면 계좌번호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간편 송금은 저축은행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핀테크업체들은 기존에서 더 나아간 혁신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대표적인 핀테크인뱅크샐러드는 오프라인 채널 기반 활동에 익숙했던 오파(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세대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들의 비중을 늘리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보험 추천·연금 진단·



주거 자산 관리 등 노후 설계에 필요한 소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실제로 5060 이용자 비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86% 늘어났다.

저축은행 중에는 웰컴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앱 웰컴디지털뱅크(웰뱅)가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190만건으로 200만건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 거래 외에도 프로야구, 배구 등 스포츠를 활용한 웰빙 토크링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앱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도 요구된다. 최근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금융사들이 접속 지연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금융사 몇 곳이 국제적인 디도스(DDos) 공격을 받기도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연휴기간 온라인 거래량이 평소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비상운영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근무인력 800여명을 투입해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유이나기자

## 1월 車 생산·수출·내수 두 자릿수 증가...“글로벌 수요 회복세”

트리플 증가 달성은 5개월만

임단협 타결로 생산 정상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5개월 만에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대비 24.9% 늘어난 31만4190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와 기아는 각각 18.5%, 24.9% 증가한 14만3634대, 11만6522대를 생산했다.

한국지엠과 쌍용의 생산 대수는 3만7490대, 9652대로 각각 81.9%, 11.6% 증가했다. 반면 르노삼성엔 11.5% 줄어든 6510대를 생산했다.

산업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의한 생산 정상화와 내수, 수출 동반 증가 등 자동차 수요 호조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의 경우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3만7692대를 기록했다.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됐고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소비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와 기아는 각각 25.0%, 12.0% 늘어난 5만9501대, 4만1481대를 팔았다.

한국지엠과 쌍용의 내수 판매는 각각 19.7%, 1.6% 증가한 6106대, 5648대로 집계됐다. 르노삼성은 17.9% 줄어든 3534대 판매에 그쳤다.

판매 실적 5위 안에는 모두 국산차가 이름을

올렸다. 그랜저가 8081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카니발(8043대), 쏘렌토(7480대), 투싼(6730대), 아반떼(6552대) 순이다.

수입차 판매도 2만2317대로 27.3% 증가했다.

특히, 독일산 수입차 판매가 46.6% 늘었다. BMW(111.1%), 아우디(201.7%) 등이 좋은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영국(0.4%), 스웨덴(8.9%)산 자동차 판매도 약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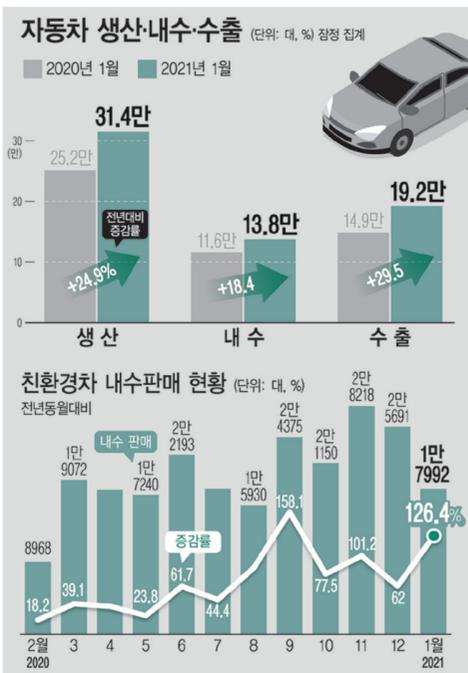
이외에 일본(-21.6%), 미국(-1.8%), 이탈리아(-24.1%), 프랑스(-47.2%)산 자동차 판매는 줄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9.5% 늘어난 19만2322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현대(9.2%, 8만1746대), 기아(38.6%, 7만4800대), 한국지엠(92.7%, 3만555대), 쌍용(43.1%, 3000대), 르노삼성(35.6% 2618대) 등이 고른 실적을 냈다.

산업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세 등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수출단가 증가율이 수출 대수 상승 폭을 웃도는 40.2% 달성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등으로 수출 품목이 고부가가치화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SUV 수출 대수는 37.7%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71.7%로 3.7%포인트(p) 확대됐다.

## 광주 아파트값 4년 새 29.7% 급등...최근 안정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안정 유지



광주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년 새 30%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큼'이 KB

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지난 2017년 1246만원에서 2021년 1월에는 1778만원으로 532만원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2.7%에 달한다.

지역별로 광주시는 지난 2017년 826만원에서 2021년 1072만원으로 245만원(29.7%) 올랐다. 6대 광역시 중에는 대전(53.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같은 기간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무려 104.5% 폭등했다. 서울은 2287만원에서 4111만원으로 79.8% 올랐으며 경기도도 42.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2017년 564만원에서 712만원으로

로 26.3% 상승했다.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14일 0.40%에서 21일 0.29%로 내려간 이후 1월4일 0.16%, 11일 0.13%, 18일 0.13%, 25일 0.09%, 2월1일 0.09%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 전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또한 주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하루 평균 150여건에 달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50여건으로 감소했다.

기동취재본부

## 길어지는 코로나19에 완성차 스물3사 위기 경고

전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대주주를 둔 완성차 '스물3사'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자율구조조정(ARS)에 돌입한 쌍용차는 법정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P플랜'(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에 시동을 걸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국지엠은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방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부평2공장을 절반만 가동하고 있고, 프랑스 르노의 비용절감 요구로 희망퇴직 등을 추진 중인 르노삼성엔은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쌍용, 법정시한 2주 앞으로...생산차질 이어져

15일 업계에 따르면 ARS 시한을 2주 앞둔 쌍용차는 오는 28일 전까지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P플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쌍용차는 마힌드라와 유력 인수후보인 HAAH오토모티브간 입장차로 4차(산업은행·쌍용차·마힌드라·HAAH오토모티브)간 협의가 불발된 후 P플랜에 공을 들여왔다.

P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조정 기능을 합친 제도다.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을 전제로 2~3개월 정도의 조단기 법정관리를 거치며, 법원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P플랜 가동을 위해서는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쌍용차의 'P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계획과 산업은행의 동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HAAH오토모티브는 자신들이 쌍용차에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은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도 최근 변수로 떠올랐다. 쌍용차의 부채가 자산가치보다 높게 지난해 추진시 주주들의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평택공장 부지 가격이 많이 올라 마힌드라의 동기가 중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차질도 문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신청 후 부품공급 차질로 가동과 중단이 반복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지난 3일 이후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쌍용차는 16일 생산재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지엠 차량용반도체 품귀 유턴...부평2공장 절반 가동

한국지엠은 지난 8일부터 부평2공장을 50%만 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모회사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생산차질을 빚으며 글로벌 구매·공급망에 통합된 한국지엠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구매·공급망에 통합된 한국지엠은 8일부터 부평 2공장의 가동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2공장에서는 현재 중형 세단 말리부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가 생산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수요가 많은 제품들을 우선 생산하며, 부평2공장의 생산 손실을 최대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르노삼성, 희망퇴직·노사갈등...본사서 '경고성메시지'

지난해 نيسان 로고 위탁생산이 종료로 적자를 낸 르노삼성은 프랑스 르노그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르노그룹은 한국을 라틴 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수익성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르노그룹은 전 세계 각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르노루선에서 유럽과 함께 수익성 개선 지역으로 언급된 라틴 아메리카 지역 브라질의 경우 이미 1300여명을 감원하고 신입사원 임급의 20%를 삭감했다.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 주기도 4년으로 변경했다. 르노삼성 역시 이달 초 전체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은 임원의 임급도 20% 삭감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서바이벌 플랜'을 시행 중이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결정을 받았으며, 이달 초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결시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김민정기자